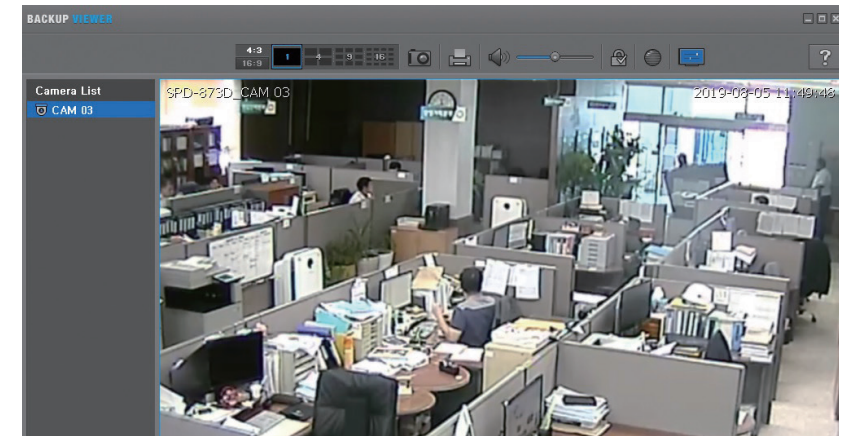


제보자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느 기자의 통렬한 반성

 **기호일보**

이창호 기자



D씨가 건설폐기물업체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지난해 연말 편집국으로 한 여성(A씨)과 남성(B씨)이 찾아왔다. 이들은 기업비리, 고위 관료(C씨)와 기업회장(D씨) 간 로비에 대해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잠깐 제보내용을 들었을 뿐인데, 파급력이 상당히 보였다. 그래서 경제부, 사회부, 지역사회부 3개 부서 기자들이 모여 A씨의 제보를 들었다.

A씨는 얼마 전까지 해당 기업의 대표 이사로 재직했고 남성 B씨는 회장의 수행비서였다고 밝혔다. 내부자 제보를 하겠다고 찾아온 것이다. 제보는 그동안 축

적한 자료와 함께 근거가 명백한 사실들이었다.

제보 내용은 이랬다.

C씨는 국회 고위공무원이었고 D씨는 건설폐기물 업체 소유주였다. 이들은 수년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로비를 위해 만나왔다. 함께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서로의 집 주변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대리비용까지 지불해주는 사이였다. 돈은 모두 D씨가 사용했다. C씨는 D씨에

게 김·경 관계자들을 소개해줬고 D씨는 이를 활용해 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불법 행위를 방어했다.

특히 C씨는 D씨가 토지를 사들여 사업을 하는 데 개입했다. 쉽게 토지를 사들인 D씨는 C씨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해줬다. D씨는 C씨가 수천만원을 투자해 돌려준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금액의 크기는 투자금 대비 너무 컸다. A씨는 이 사업이 비자금 형성의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C씨와 D씨가 주고받은 돈은 합계가 수억원에 달했고 D씨는 수십억원의 회삿돈까지 횡령했다.

C씨는 D씨의 기업이 필요한 자재를 자신이 잘 아는 지인의 업체에서 구입하라고 지시했고 D씨는 그대로 따라줬다. C씨는 D씨에게 해외여행이나 국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함께할 여자들을 소개해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 그런 라운딩이 이뤄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C씨와 D씨는 서로 여자를 소개시켜줬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C씨와 D씨는 김·경, 광역단체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 모임을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인원수는 최대 100

여 명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었다. D씨는 많은 손을 쓰며 이들과 관계를 유지했다. 경찰발전위원회 등 공식적인 단체에도 참여했다. 고등학교 출신 공무원들과도 모임을 만들었다. A씨가 건넨 모임 명단에는 전·현직 수사관,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한 인사들이 있었다.

D씨는 C씨를 비롯한 공무원 등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 골프여행을 제안했고 비용은 모두 D씨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D씨는 광역단체가 부과한 공공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업계와 관련된 제보도 했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모두 7개사이지만 사실 5개사가 1개사나 마찬가지로라는 것이다. 이름과 명의만 다를 뿐 주인은 하나라는 설명이었다. 이 때문에 건폐 처리비용이 평균 5만 원이라고 할 때 FM대로 하면 회사가 3만5천 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나머지를 먹지만 업체 간 입만 맞추면 6만~7만 원으로 둔갑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D씨는 사적인 용도로 쓴 금액이 73억원에 육박하자 2015년 연말 기준 자사주 9.1%를 취득해 주임종단기채권을 38억원으로 정상화시킨 뒤 또다시 지난해 말 기준 60억원 가까이 회삿돈을 유용하고 있다.

C씨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해둔 것을 A씨가 직접 들고 왔다. D씨는 B씨를 상습 폭행했다. 폭언은 더 자주 있었고 오줌을 닦게 하는 등 갑질 또한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B씨는 직접 당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 그 내용을 공증까지 받아냈다. A씨의 말을 바로 믿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지역에서 정관계, 기업 간 로비 게이트가 열리는 셈이었다. 그래서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실관계 확인, 자료수집, C·D씨 등 관련자들과의 만남은 기자 2명이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다. 책임데스크는 사회부장이 맡고 취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그 위로는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D씨가 워낙 다양한 계층과 상시 로비를 해왔기 때문에 취재과정에서 압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취재를 마쳤고 기사를 쓰기 위한 뼈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모든 행위가 합법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스트레이트(ST) 기사와 박스(BOX)기사로 구분해 하루에 2편씩 기사를 내보낼 계획이었다.

▶ 00기업 회장과 국회 고위공무원과 수상한 연결고리

1. ST) D씨와 C씨 사이 상시 로비 이유는 무엇인가
 - 토지 매입 후 C씨의 지분 참여
 - D씨 로비 목적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이익 증대
 - BOX) C씨의 골프 접대 현장서 행태는
 - 2017년 한 팀 이문 여성에게 심각한 성희롱
2. ST) D씨 회삿돈 횡령
 - 고철대금 약 8억원 개인계좌로 골럭
 - BOX) 대표 수행비서에게 도를 넘는 갑질
 - 오줌을 닦는 등 유무형 폭행
3. ST) D씨가 들여온 수상한 부사장
 - 기초단체 부단체장 출신 취업제한 어겨
 - BOX) 시 공무원 대상 부단체장의 로비
 - 7천만원 과태료 0원으로 면제받아
 - 300만원 치 기프트카드 시 공무원에게 갔나
4. ST) 수상한 D씨의 해외 로비
 - 수사기관 사조직과 상해 골프여행
 - BOX) 막강한 D씨의 사조직
 - 정관계, 수사기관 등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피하러 계열사 편법 입사?

**인천 용진군 지방서기관 근무 A씨
서구 건설폐기물 업체 조건 안되자
그룹 소속 기업 부사장으로 들어가
두달 만에 본사로 옮겨 인허가 업무**

전직 인천시 용진군 고위공무원 A씨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어기고 지역 내 기업에 입사에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고위공무원은 취업 제한 기간 중 자신이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고 있었음에도 편법으로 취업한 것이 알려져 인천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19일 인천시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지역 내 건설폐기물을 취급하는 B기업에 취업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 20일 정년퇴직 때까지 용진군 소속 지방서기관으로 근무했다.

B기업은 서구 캠퍼스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습운반업, 순환토사 생산업체로 자본금 900여억 원에 2018년 말

기업회계기준 465억6천937만 원의 매출액을 올린 회사로 알려져 있다.

민원에서 제기된 내용은 A씨가 퇴직 후인 2017년 5월 B기업에 부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공직윤리시스템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퇴직공직자로서 취업할 수 없는 조건임을 인지했다. 하지만 그 해 5월 말께 B기업과 같은 그룹에 소속된 C기업에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그 후 입사는 C기업이 아닌 B기업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임금도 B기업에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B기업은 C기업에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1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A씨의 급여, 차량 비용, 카드사용액 등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다음 약 두 달 후인 7월 초부터 A씨는 B기업으로 들어가 사-구 관련 문제,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사에서 취업 조건이 안된다고 통보해 심의를 올리겠다고 포기하고 취업 제한이 없는 C기업으로 적법하게 입사한 것"이라며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이 만료된 후에야 별도 법

인인 B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 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퇴직 후 3년간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부과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제성 기자 wjs@khlbo.co.kr



기호일보 사회부 우제성 기자

크는 이 핑계로 기사를 미루자고 했다. 기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문히니 파급력을 위해서라도 잠시 보류하자는 것이었다. 경험상 비리 등을 알리는 기사는 스피드와 연속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미루자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일단 하루 이틀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자료들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해졌다.

신문뿐 아니라 방송 등 모든 매체가 코로나19를 다루느라 정신없었다.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기사가 코로나19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갔다.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 설명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언론 생리에 밝지 않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다. A씨 제보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취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A씨는 우리에게 전화를 걸

켜져갈 것이고 C씨와 D씨는 더 악랄해지고 그들과 함께한 사조직은 건들지 못하는 괴물이 될 수 있었다.

A씨는 이 부분을 보도해주길 바랐지만 결국 우리는 D씨의 사적인 부분은 들추지 않기로 했다. D씨가 여성과 밀월여행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D씨의 로비, 횡령 등을 먼저 드러내기보다 전직 기초단체 부단체장이 취업제한을 어기고 들어와 시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내용을 먼저 쓰기로 했다.

부단체장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했다. 그래서 더욱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사가 나간 뒤 광역단체 감사관실은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D씨가 몹시 화가 나 해당기업이 발각 뒤집혔다고 했다.

기사가 나간 뒤 바로 간접적인 압력이 들어왔다. 스승같이 모시는 분이 전화로 D씨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달라고 했다. 알겠다고 했고 실제 그럴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 보도일정을 잡는 게 우선이었다.

이때 코로나19가 터졌다. 총책임데스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을 때,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내부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D씨를 평소 알고 지내던 총책임데스크가 기사가 나갈 경우, 그쪽에서 소송을 거는 등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미 소송을 몇 차례 경험한 우리는 두렵지 않았다. 설득 과정이 필요했고 꽤 오랜 대화 끝에 조금 방향을 바꿔 기사를 내보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A씨에게 기사가 왜 늦어지는지, 방향이 왜 조금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했고 A씨는 조금 실망했다. 그리고 A씨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사실 A씨와 D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A씨는 기사가 나오면 소송을 좀 더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졌다. 공익보다 사익 때문에 제보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전체는 아니지만 기사 작성까지 끝내놓고 보도 여부에 대한 고민에 다시 빠졌다. A씨는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를 했던 사람으로 어떤 기사가 나가더라도 소송에서 유리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보도를 포기하면 D씨의 불법행위는 더

공무원 출신 직원 나서자 오수처리비용 바로 감면 우연일까

고위직 퇴직 후 기업 재취업한 A씨
공공기관 얹힌 회사 연안 해결 나서
해당 업체도 골프 등 전폭적인 지원
공무원에 기프트카드 사례 등 의혹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을 어기고 편법으로 기업에 입사한 의혹
을 받고 있는 인천시 송산군 고하공무원
출신 A씨(본보 1월 20일자 10면 보도)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부사장 직
책이 아닌 회사의 연안 처리를 위한 대외
업무에 출리면서 다양한 문제를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월께 오
계수처리 비용 폭탄을 맞은 B기업의 문
제에 A씨가 나서면서 해결됐다.

30일 경단암산성단지관리공단에서 따
르면 B기업 경단사임장에서 상당 기간 어
울한 7천100만여 원의 요금을 지난해 한
꺼만에 부과했다.

이후 B기업은 여러 관료와 내부직으
로 잘못된 점을 파악해 오계수처리 비용
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전혀 먹히지
않았다.

문제 해결에 나선 A씨는 이때부터 관
련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오계수처
리비를 면제받았다. A씨가 B기업에서 전
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A씨는 오계수처리비 감면 건으로 공
무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10일께 B기업 발인카드를
아름해 300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구입
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인천시 감사관실
에 신고가 들어왔고, 기프트카드가 일부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시

공직감찰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이같이 공무원들과의 관
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B기업 대표

의 지지가 컸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30일 B기업 대표는 A씨가
사·사구·수도관리·지관리·공정 등 관공
기관과 얹힌 연안을 볼 수 있도록 서구
모 유포장에 A씨 지인공무원 출신과
골프를 예약해 주고,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B기업 법인명의 대리운전 이용과 식
대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A씨는 B기업
과 얹힌 이의를 제기했으나 전혀 먹히지
않았다.

졌다.

지난해 7월 11일 사·B기업·D기업(도

로공사 시행사) 등이 모인 도로공사 관련

회의 때 A씨는 B기업이 유리하도록 협상

을 이끌었다.

도로공사를 맡은 D기업이 도로 안전

장치 등 완공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D기업의 완공을 맡아붙이는 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회의 개최 전 A씨는 사에서 나온 '도시

계획시설 연장 건은 사에서 회의 소집 계

획이고, D기업에 대해 시기 강하게 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등의 정보를 미

리 B기업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경단사업장 오계

수처리비 감면은 예로부터 잘못 부과된

것을 경단공단 공단 측에 이의신청해 특

별하게 감면받은 것"이라며 "요즘은 로

비로 요금 감면받는 세상이 아니다. 기

프트카드는 B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수

고·궤려 차 주는 것으로 공무원 로비와

관련 연관도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말

했다.

이항호 기자 ych23@khlbo.co.kr
우체창 기자 wjc@khlbo.co.kr



기호일보 경제부 이창호 기자

어왔고 항상 상황을 정중히 물어봤다. 우
리는 미안하게도 비슷한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2020년
5월22일)까지 왔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고 생각했다. A
씨 제보내용을 다시 들춰보고 있었다.
같이 취재하던 기자는 지금 꺼내어봐야
늦었다고 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A씨는 이제 우리

를 믿지 않고 있다. 기사를 내보내기 위
해 A씨가 준비한 시간과 자료, 노력은
우리보다 더욱 대단했다. 그래서 더 미
안하다.

A씨는 소송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소송이 모
두 끝나면 A씨는 기사가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기
자는 그렇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
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

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나는 이번 제보 건에서 그렇게 하
지 못했다.

통렬히 반성한다. 나는 데스크의 반
대를 핑계로, 코로나19를 핑계로 기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너무 부끄러워 감
추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
을 모두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이 글은
일종의 반성문이다. 기자의 사명을 다하

지 못한 기자가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
한 글에 그칠지 모른다. 그래도 이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즉각적인 반성
만이 다시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
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젠가 데스크가 되면 이 글을 후배
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어느 순간, 어느 곳에 부딪
히더라도 기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

2019/07/12 ?	설원	확인 불가	확인 불가	296,0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13 ?	명가화로구이	식사	확인 불가	418,0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13 ?	나무꾼이야기 (인천 서구)	식사	확인 불가	54,0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16 ?	월출산 휴연소탕 추여탕	식사	확인 불가	46,0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16 ?	누나출담	식사	확인 불가	30,9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16 ?	목포간이회	일식	확인 불가	145,0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16 ?	씨유당산한강점	편의점	확인 불가	15,2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20 ?	인천국제CC(=신태진)	골프	확인 불가	725,0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20 ?	인천국제CC	골프	확인 불가	117,0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20 ?	명가화로구이	식사	확인 불가	166,0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2019/07/22 ?	인천국제CC	골프	확인 불가	530,000원	SC제일은행 삼성카드

D씨가 관리한 정재계 인사들과의 골프 회동 명단